

Meritz 통신서비스 Weekly



통신/미디어
Analyst 정지수
02. 6454-4863
jisoo.jeong@meritz.co.kr

2021.9.6

1 주가 현황

| | 수익률(%) | | | | PER(x) | | PBR(x) | | 배당수익률(%) | | 국내 통신사 외국인 지분율 추이 |
|---------------|--------|------|-------|-------|--------|-------|--------|-------|----------|-------|-------------------|
| | 1W | 1M | 3M | 6M | 2021E | 2022E | 2021E | 2022E | 2021E | 2022E | |
| KOSPI | 2.1 | -2.1 | -1.2 | 5.8 | 11.5 | 11.5 | 1.3 | 1.3 | 1.6 | 1.6 | |
| 통신업종 | 4.5 | -0.3 | -3.4 | 25.8 | 8.9 | 8.9 | 0.8 | 0.8 | 3.7 | 3.7 | |
| SK텔레콤 | 6.1 | -0.3 | -4.7 | 23.9 | 9.1 | 7.5 | 0.9 | 0.8 | 3.4 | 3.5 | |
| KT | 1.5 | -1.8 | -0.9 | 25.1 | 8.8 | 8.3 | 0.6 | 0.5 | 4.9 | 5.3 | |
| LG유플러스 | 2.9 | -2.7 | -5.6 | 21.5 | 8.8 | 7.9 | 0.8 | 0.7 | 3.6 | 4.0 | |
| AT&T | 1.6 | -1.0 | -5.8 | -4.7 | 8.4 | 8.5 | 1.1 | 1.0 | 7.6 | 7.2 | |
| Verizon | 1.2 | 0.1 | -3.3 | 1.1 | 10.5 | 10.4 | 2.9 | 2.5 | 4.6 | 4.7 | |
| T-Mobile | -1.7 | -4.4 | -5.9 | 14.7 | 54.2 | 39.0 | 2.5 | 2.3 | 0.0 | 0.0 | |
| NTT | 6.0 | 10.0 | 6.7 | 14.1 | 12.5 | 10.1 | 1.4 | 1.3 | 3.3 | 3.6 | |
| KDDI | 3.7 | 5.4 | -4.0 | 9.8 | 12.4 | 12.1 | 1.7 | 1.6 | 3.4 | 3.6 | |
| Softbank | 0.3 | -9.3 | -23.5 | -38.3 | 2.8 | 5.8 | 1.4 | 1.0 | 0.7 | 0.7 | |
| China Mobile | 1.7 | -3.1 | -0.3 | -12.3 | 7.2 | 6.8 | 0.7 | 0.7 | 7.5 | 8.1 | |
| China Unicom | -3.5 | -5.1 | -2.1 | -19.8 | 7.1 | 6.3 | 0.3 | 0.3 | 6.9 | 8.0 | |
| China Telecom | -1.5 | -9.1 | 10.2 | -0.7 | 7.7 | 7.3 | 0.5 | 0.5 | 7.6 | 8.7 |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2 업종 코멘트

전주 동향

9월 첫째주 통신업종 주가지수는 KOSPI 대비 +2.4%p 수익률 기록하며 Outperform
SK텔레콤, MSCI 조정이 마무리 및 구독 서비스 'T우주' 성장성이 부각되며 경쟁사 대비 Outperform
7월 기준 국내 누적 5G 가입자 1.7천만명 돌파, 월 60만명 순증 기록
국내 기관은 SK텔레콤, KT 순매수, LGU+ 순매도, 외국인인 LGU+ 순매수, SK텔레콤, KT 순매도

금주 전망

금주는 특별한 이벤트가 부재
갤럭시 Z폴더/플립 판매 현황에 따라 일시적인 마케팅 부담은 존재하나 국내 5G 가입자 순증에 긍정적
5G 통신장비 섹터는 삼성전자 Verizon향 물량이 집중되는 3Q21부터 시장 기대에 부합하는 실적 기대
글로벌 광섬유 수요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대한광통신 선호

★ 통신업종 캘린더

| SUN | MON | TUE | WED | THU | FRI | SAT |
|-----|-----|-----|-----|-----|-----|-----|
| 29 | 30 | 31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3 주간 뉴스

▶ 과기정통부 "5G 부정적 인식 존재...이통3사 망 투자 촉진할 것" (아주경제)

- 과기정통부, 상반기 5G 품질결과 공개와 함께 통신3사에 적극적인 망 투자를 촉진할 계획 발표
- 현재 5G 커버리지는 서울, 광역시를 넘어 지방·중소도시 주요 거주 활동 지역까지 확대
- 5G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해소를 위해 통신사들의 적극적인 망 구축과 종합서비스 확산 필요성 강조
- ⇒ 한편 5G 품질 관련 속도는 SKT가 1위, 커버리지는 LGU+이 1위, KT는 다중시설 교통 부문 1위 기록
- ⇒ 올해 통신 3사의 Capex 집행은 하반기 본격화될 전망, 국내 5G 통신장비 섹터의 반사수에 기대

▶ 美, 기술강국 韓·日·獨에 러블콜...5G장비등 한국기업 반사이익 기대 (매일경제)

- 미국 의회가 75년 된 파이프라인 연합체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위해 새로운 변화 모색
- 첨단 기술 역량을 갖춘 한국, 일본, 독일 등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의 참여가 긴요해졌다는 판단
- 파이프라인 확대는 5G 통신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산업적 이익 검토 필수
- ⇒ 글로벌 5G 통신 장비 시장 규모는 2020년 106억달러에서 2023년 233억달러로 고성장기 기대
- ⇒ 파이프라인 확대 반사이익으로 한국의 삼성전자, 유럽의 에릭슨에 대한 시장점유율 상승 전망

▶ SKT, 美 코리아콘텐츠플랫폼에 300억 투자 (매일경제)

- SK텔레콤, 미국 현지법인을 통해 코리아콘텐츠플랫폼(KCP)에 올해 상반기 300억원 투자 집행
- KCP는 한류 콘텐츠를 북미 지역에 수출하기 위해 지상파 3사가 2016년 11월에 설립한 회사
- KCP는 2017년부터 코코와(KOCOWA) 서비스를 진행 중인데 북미 가입자 수가 100만명 돌파
- ⇒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인 웨이브 콘텐츠를 강화하고 해외 진출 가능성까지 열어두기 위한 행보
- ⇒ 웨이브는 동남아시아 OTT 진출을 고려했지만 최근 수익성 측면에서 미국 시장 진출로 방향 선회

▶ 케이뱅크 장외주식 가격 50% 급등...몸값 6조7000억 규모 (아시아경제)

- 케이뱅크의 장외주식 가격은 지난달 31일 1만 2,000원 보다 50% 급등한 1만 8,000원에 거래
- 거래 물량은 총 555주, 이번 거래가를 케이뱅크의 총 발행 주식에 적용하면 기업가치는 약 6.7조
- 최근 카카오뱅크의 성공적인 기업공개로 케이뱅크 장외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 증가
- ⇒ 케이뱅크는 2023년 상장을 추진 중, 이외에 KT 자회사 중 스튜디오 지니 또한 상장 준비 중
- ⇒ 현재 KT 주가에는 주요 자회사들에 대한 기업가치 평가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황

▶ 삼성전자, 3일 갤럭시A52s 5G 국내 출시... 59만9500원 (전자신문)

- 삼성전자, 보급형 스마트폰 신제품 갤럭시 A52s 5G를 9월 3일 국내 출시, 출고가 59만 9,500원
- 국내 시장을 비롯해 영국과 인도 등 글로벌 시장에도 갤럭시A52s 5G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
- 중저가 영역에서는 가성비 높은 갤럭시A 시리즈로 점유율을 확대하는 이원화 전략 일환
- ⇒ 현재 5G로만 출시되는 갤럭시Z폴드3와 갤럭시Z플립3이 역대급 사전 판매량을 기록
- ⇒ 지속적인 중저가 5G 스마트폰 출시로 국내 5G 가입자는 지속적인 우상향을 기록할 전망

▶ 웨이브, NBC 유니버설 제휴 확대...'피콕' 오리지널 계약 완료 (아이뉴스24)

- 웨이브, NBC 유니버설의 '피콕 오리지널 시리즈' 국내 독점 및 최초공개 계약 체결 발표
- '피콕'은 NBC 유니버설이 지난해 론칭한 대형 스트리밍 서비스로 '닥터 데스' 등의 라인업 확보
- 이외에 유니버설 텔레비전이 제작한 '베이스타이드 알갱들', '걸스 파이프 에바' 등 최초 공개
- ⇒ 웨이브는 오리지널 콘텐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약 1조원 규모의 콘텐츠 투자 집행할 계획
- ⇒ 웨이브는 향후 추가 투자 유치, 콘텐츠 수익 재투자 등을 통해 투자금을 마련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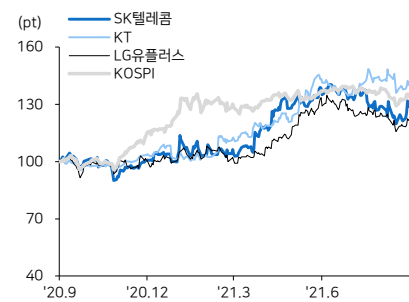
4 주요 지표

| (십억달러) | 종가 (통화) | 시가 총액 | 매출액 | | 영업이익 | | 당기순이익 | | EBITDA | | EV/EBITDA (배) | | ROE (%) | |
|--------|---------------|----------|-------|-------|-------|-------|-------|-------|--------|-------|---------------|-------|---------|-------|
| | | | 2021E | 2022E | 2021E | 2022E | 2021E | 2022E | 2021E | 2022E | 2021E | 2022E | 2021E | 2022E |
| 한국 | SK텔레콤 | 305,500 | 19.1 | | 16.9 | 17.6 | 1.3 | 1.5 | 2.2 | 2.5 | 5.0 | 5.1 | 10.3 | 11.1 |
| | KT | 32,900 | 7.4 | | 21.3 | 21.9 | 1.3 | 1.4 | 0.8 | 0.9 | 4.5 | 4.6 | 6.9 | 7.1 |
| | LG유플러스 | 14,400 | 5.4 | | 12.0 | 12.6 | 0.9 | 1.0 | 0.6 | 0.7 | 3.0 | 3.1 | 9.4 | 9.8 |
| 미국 | AT&T | 27.6 | 196.8 | | 171.7 | 161.0 | 34.1 | 32.9 | 22.4 | 22.1 | 52.9 | 52.2 | 13.5 | 12.4 |
| | Verizon | 55.4 | 229.5 | | 135.2 | 136.2 | 32.1 | 33.2 | 22.0 | 22.2 | 48.5 | 49.9 | 28.8 | 25.7 |
| | T-Mobile | 136.0 | 169.7 | | 80.5 | 82.3 | 7.3 | 9.6 | 3.1 | 4.4 | 26.5 | 27.9 | 4.9 | 5.9 |
| 일본 | NTT | 3,107 | 110.5 | | 108.2 | 109.4 | 15.1 | 15.7 | 8.4 | 10.0 | 29.0 | 29.4 | 10.8 | 14.4 |
| | KDDI | 3,540 | 74.4 | | 48.5 | 49.1 | 9.6 | 9.6 | 6.0 | 6.0 | 16.3 | 16.3 | 14.5 | 13.7 |
| | Softbank | 6,200 | 97.4 | | 50.9 | 54.5 | 49.9 | 8.4 | 37.1 | 13.7 | 50.0 | 17.8 | 39.3 | 11.2 |
| 중국 | China Mobile | 48.3 | 127.1 | | 129.9 | 137.1 | 18.4 | 19.7 | 17.6 | 18.9 | 47.5 | 49.6 | 9.7 | 9.9 |
| | China Unicom | 4.1 | 16.2 | | 50.2 | 53.1 | 2.1 | 2.4 | 2.3 | 2.5 | 15.1 | 15.8 | 4.5 | 5.0 |
| | China Telecom | 2.7 | 59.3 | | 66.2 | 70.6 | 5.2 | 5.6 | 3.9 | 4.3 | 19.5 | 20.4 | 6.6 | 6.7 |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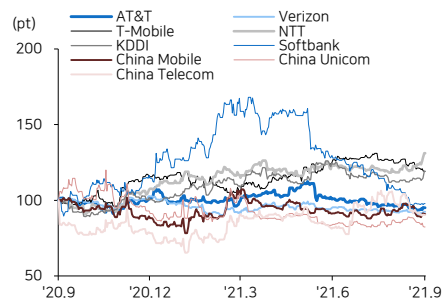
5 주요 차트

최근 1년 국내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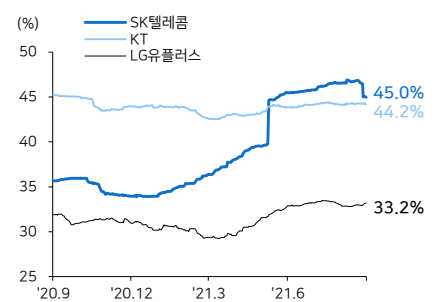
자료: WiseFn

최근 1년 해외 통신주 상대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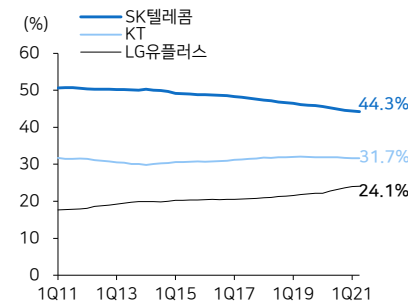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통신 3사 외국인 지분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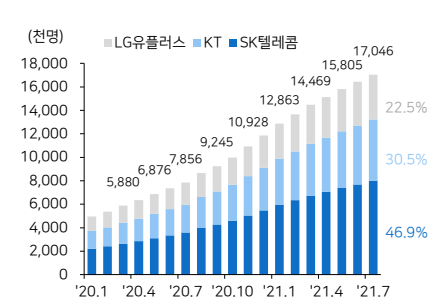
자료: WiseFn

통신 3사 이동전화 점유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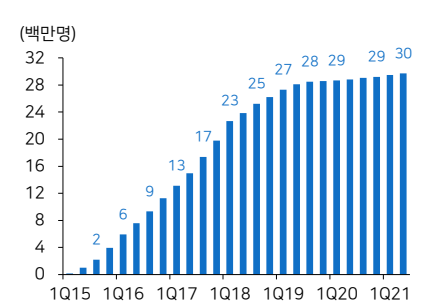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3사 5G 가입자 및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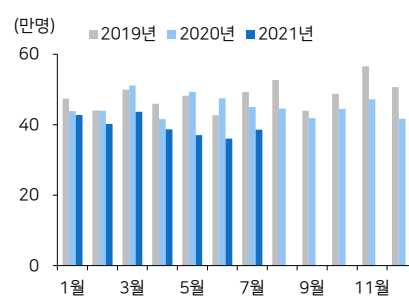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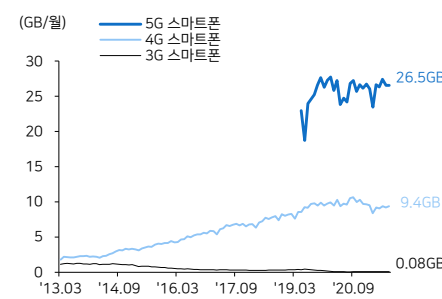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번호이동시장(MNP)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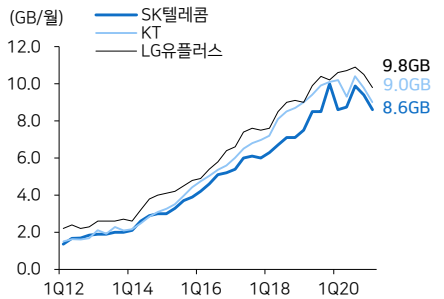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동전화 단말기별 트래픽 현황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 3사 LTE 가입자 데이터 사용량



자료: 각 사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